

F-8. 기업실사 수감 시 착안사항

1. 분식을 제거한다.

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그 기업의 재무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좋은 상태 보여주기 위해 부실이 깊어질수록 분식 결산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따라서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분식을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.

2.. 숨겨진 부실을 내놓아야 한다.

외부에서 투입된 실사팀들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다면 모든 부실을 밝힐 수 없다. 담당자나 경영진들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사항들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적당히 실사를 받을 경우 Work-Out 개시 이후에 확인되어 재실사를 받게 되면 재채무조정에 들어가거나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.

따라서 모든 부실은 전직원이 스스로 밝히고 Work-Out 에 들어가야 자구계획에 따라 기업을 살릴수 있다.

3. 자산평가는 객관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.

자산평가지 매각금액과 감정평가액 중 통상적으로 낮은 금액인 매각금액을 도외시하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도한 자산감소를 억제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.

그러나 이는 Work-Out 이후 자구 이행을 위한 부동산이나 불용자산 매각시 영업이익으로 평가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액을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.